



김용래 교수
한국불교 도박 36選

신라인, 예술 통해 불국토를 재현하다

9. 통일신라, 불교문화를 꽃 피우다

한국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세계적 문화 유산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려대장경과 고려 불화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완벽한 조형의 석굴암, 그리고 10월짜리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과 일명 무영탑으로 알려진 석가탑이 있는 불국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석굴암과 불국사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서 통일신라시대의 화려한 불교문화의 정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의 수도 경주에 대해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았고 탑은 기러기가 쫓아서 서 있는 듯했다”라고 기술하였는데, 휘형정 밝은 달밤에 웅장한 사찰과 우뚝 솟은 탑들이 연이어 늘어선 서라벌 거리를 상상해 보면 엔지 모를 아련한 감회를 느끼게 된다. 당시를 살았던 신라인들은 현실의 행복과 내세의 안녕을 이룰 절과 탑에 가서 간절히 염원하였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조형물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당시의 불교신앙과 신라인들의 꿈과 바람을 집약해 놓은 공간이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8세기 중반 재상을 지낸 김대성(700~774)이 전생과 현생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장건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진골출신인 김대성 가문은 2대에 걸쳐 재상을 역임하였고 성덕왕과 경덕왕대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불국사는 그와 일족이 사재를 내어 세운 절로 23년이나 공역을 지속했지만 미처 완공되기 전에 김대성이 죽어서 사후에 왕실에서 후원하여 완성되었다. 즉 시작은 김대성이 하였지만 결국 왕실이 중심이 된 국가 차원의 공역으로 준공된 것이었다.

그런데 김대성과 불국사, 석굴암 조영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김대성은 원래 경주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 경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모친은 부앗집에서 풀팔이를 하며 밭 몇 마지기만을 받아 생활하였다. 하루는 흥륜사의 접개라는 승려가 “하나를 시주하면 만 배를 얻어 안락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시주를 권하자 후세의 복을 얻기 위해 생활터전인 밭을 보시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대성이 죽었고 재상 김문량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는데 아이는 대성이라는 이름을 새긴 금으로 된 간자를 왼손에 쥐고 있었다. 간자는 절할 법회에서 전생과 현재의 죄를 참회하며 안락을 기원 할 때 쓰는 도구였다.

또한 김대성은 전생의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았다. 어른이 된 김대성은 사냥을 좋아해 토함산에서 곱한 마리를 잡고 잡을 자는데 곱이 귀신으로 변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잡아 먹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용서를 빌자 귀신이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달라고 하였고 그 뒤로는 사냥을 하지 않고 꿈을 잡은 장소에 장수사를 세웠다. 그리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석굴암)를 조성했다고 한다.

불국사에는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불, 그리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이 함께 모

셔졌고 각각의 공간이 하나의 불국토로 조형되어 있다. 다만 청운교와 백운교 등 석조 건축물 외의 목조 건물은 조선후기에 중창되고 최근에 새로 복원된 것이어서 원형을 그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간결한 형태의 석가탑과 화려한 다보탑이 웅장하게 어우러져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무영탑이라고도 불리는 석가탑의 조성과 관련해 서는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석가탑을 만들 때 김대성은 당시 가장 뛰어난 석공으로 이름난 백제 유민 출신 아사달을 불렀다. 아사달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탑을 만들었고 세월이 한두 해가 흐르자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부인 아사녀가 불국사로 찾아왔다. 하지만 탑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자와 만날 수 없다는 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조금 떨어진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칠 때 즉 탑이 완공되면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사녀는 하릴없이 남편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기다리다 지쳐 기력을 상실한 아사녀는 끝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다가 못에 빠져 죽었다. 탑이 완성되고 나서 아사달은 그제야 아내가 기다리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지만 아사녀는 이미 죽은 뒤였다.

이에 사람들은 이 못을 그림자 연못이라는 뜻의 영지라고 하고 그림자가 끝내 비추지 않았다고 하여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불렀다.

석굴암은 과학적 설계와 극치의 예술적 조형으로 유명한데, 이는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석굴사원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면서도 완전한 인공석굴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을 띤다. 석굴암의 본존불은 동형의 석굴 중앙에 동쪽을 향해 앉은 석가모니불로서 정각을 이룬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고 한다. 10대 제자상과 11편 관음보살상에 둘러싸인 석굴암 본존불의 승엄한 아름다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종교적 경외심을 갖게 한다.

그동안 석굴암의 배치와 구조, 조성 원리와 목적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학설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석굴암이 천상의 초월적 존재인 천인들을 위해 만든 천궁이며 본존불은 석가가 모친을 위해 설법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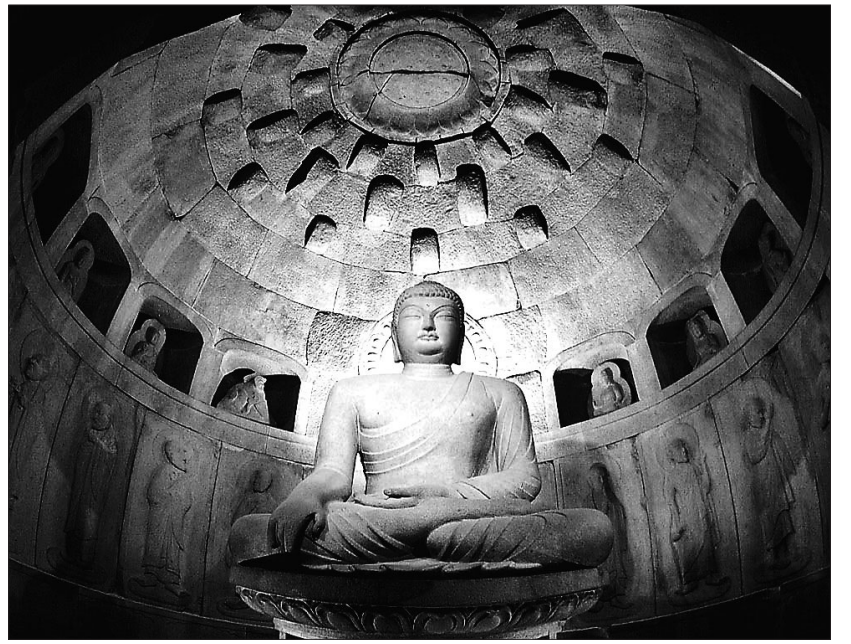
또한 확실한 불교신자였던 김대성이 스승으로 숭모한 화엄학승 표훈의 일승세계론, 즉 해인삼매로 표현되는 부처의 깨달음이 보현보살을 통해 중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신앙이 상층부터 기층까지 확산되면서 사찰뿐 아니라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 산 자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탑과 불상, 종 등이 다수 조성되었다. 황복사 탑(692년), 석남사 비로자나불상(766년), 성덕대왕 신종(771년) 등 간절히 기원을 담은 거대 불사가 이어졌고 이는 화려한 불교문화의 전성기를 꽃피웠다. 그 중 성덕대왕 신종은 일명 에밀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밀레종의 전설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근대기에 들어 채록되어 인구에 널리 회자되었다.

부왕인 성덕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효성왕이 경주 북천 가에 봉덕사를 창건하였고 성덕왕의 또 다른 아들인 경덕왕은 종을 주조하려 하였다. 이때 한 승려가 민가를 돌면서 보시를 받았는데 어리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사진 왼쪽)와 석굴암(사진 오른쪽).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불국사와 석굴암은 당시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신라인들의 신앙의 집약의 집약의 집약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불국사·석굴암, 당대 문화 정수

불교신앙과 신라인의 발원 집약

애절한 사연담긴 성덕대왕 신종

最古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다라니

사찰 중창·창건 담당 관청도 운영

다양한 분야서 화려한 발전 이뤄

이를 엮고 있는 아낙네가 가난하여 시주할 것이 없으니 애라도 가져가라고 농을 하자 듣고 그대로 들어갔다.

하지만 대중의 주요 작업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고 어린애를 버쳐야 종이 완성된다는 일종의 계시가 있었다. 이에 승려는 그 아낙네의 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물에 넣었고 마침내 종이 완성되었다. 이후 종을 지면 아이의 원혼이 울어서 에밀레라는 종소리가 났다고 한다.

통일신라의 수준 높은 불교문화가 낳은 또 다른 자랑거리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다라니경〉이다. 이는 한 측의 두루마리로 말려진 너비 약 8cm, 길이 약 620cm의 경전으로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의 해체, 복원공사 때 2층의 사리함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간인 연대는 석가탑 건립연대의 하한선인 751년 이전의 8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인쇄물로 알려져 있던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의 770년보다 20년 이상 앞서는 셈이다. 그런데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다라니류의 경전이 인쇄된 이유는 그 수요

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신라에서는 〈무구정광다라니경〉에 의거해 탑을 만드는 것이 유행하였고 그 안에 사리와 함께 소형 탑과 다라니를 넣어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였다. 창립사, 동화사, 보림사, 해인사 등에 세워진 왕생 기원 탑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큰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했는데, 신앙 및 수행 공동체인 결사가 조직되어 불교신앙을 실천하고 공동으로 불사의 재원을 마련하였다. 아미타 정토신앙에 의거한 열불결사는 8세기 중반에 이미 성행하였는데 경덕왕대의 만일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865년 철원 도포안사의 철제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할 때 작성된 “비천한 이들이 긴 어둠에서 깨쳐날 것이며 게으르고 추한 뜻을 바꾸어 진리의 근원에 부합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거사를 찾아 1,500명이 인연을 맺어 쇠와 돌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불사에 힘써 힘을 줄을 뿔었습니다”라는 기록을 보면 당시 결사에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방 단위에서는 종교적 성격의 향도가 결성되어 경제적 보수와 불사를 행하였는데,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어 뒷날의 보증을 기원하는 매항을 위한 향도 조직이 다수 생겨났다.

사찰과 탑, 불상과 종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자가 필요했는데 그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사원 장인이 존재하였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사원 건축기술, 불보살상 조영에 필요한 조각과 회화, 경전 조성을 위한 종이와 먹 등의 제작기술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당시 최첨단의 하이테크 기술과 선진 문물이 동시에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급기술을 가진 전문 장인들은 박사, 장으로 칭해졌고 삼국에서 일본에 불교문화를 전할 때도 교학을 연찬한 승려 외에 이들 기능장의 역할이 컸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사원의 조영과 중창을 담당하는 관청인 사원 전진이 있었고 승려 장인과 숙인 장인이 공동 작업을 하였다. 또한 큰 사원의 경우 자체 승장(僧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승직체계를 운영하

여 분업과 조직화를 이루었고 전문 기술과 기능이 후대로 전수될 수 있었다.

신라를 대표하는 승장으로는 불세출의 조각가이자 서화가였던 양지를 들 수 있다. 7세기에 활동했던 그는 석장사, 영묘사, 법림사 등의 불상과 신장상, 전불 등을 조성하였고 사천왕사의 탑 기단부를 장식한 녹유소조상도 그가 조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출신과 생몰년 등 자세한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삼국유사〉에는 그가 지팡이에 포대를 걸어두자 지팡이가 저절로 시주받을 집으로 날아가 흔들흔 소리를 내었고 포대가 보시물로 꼭 차면 지팡이가 되돌아왔다는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양지는 신비의 배일에 싸인 인물이었다고 이질적인 뛰어난 조각기법 때문에 그가 서역 출신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한편 양지가 영묘사 장육삼존상을 조성할 때 성 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날라와 쌓으면서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서럽도다. 서럽도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는 내용의 풍요를 지어 불렀다고 할 정도로 당시 그의 명성과 인기는 대단하였다.

신라 사회에서 불교문화의 확산은 향가의 성행과 그것을 기록한 향찰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고유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신라와 고려시대 향가 기체에 사용되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현실을 벗어나 서방 극락정토로 왕생하기를 희구하는 광덕의 ‘원왕생가’, 미륵보살에 대한 공은 마음과 믿음으로 이변의 극복을 염원하는 월명사의 ‘도솔가’ 등 불교적 서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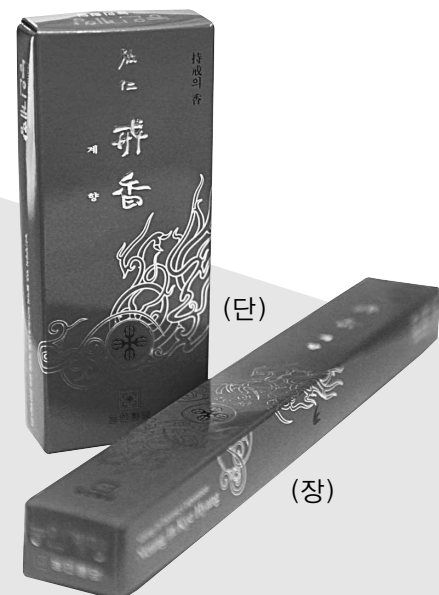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사신구제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인 ‘제망매가’는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너와 나를 갈라서게 만들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르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서도 가는 곳을 모르는가. 아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하여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서 서로 만나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허말라야를 넣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은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이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